시키보의 2007 춘하절 니트 소재 - 원료와 방적 방법으로 차별화

시키보는 2007년 춘하절을 겨냥한 니트 소재로 원료나 방적 방법에 전념한 차별화 소재를 충실하게 만들고 있다. 이 소재의 키 워드는 경량감과 광택감으로 되어 있다. 특히 “듀얼 액션”을 전략 소재로 정하고 상품 폭을 넓히고 있다.

시키보는 2006년 추동절부터 원료나 방적 방법에 전념하여 차별화한다는 방향성을 내놓고 있다. 2007년 춘하절은 경량감과 광택감을 키워드로 하여 깊이 파고 들어갈 예정이며, 잔털이 적은 특수 방적사 “듀얼 액션”이나 연속 실켓 가공사 “피스코” 등을 중점 소재로 정하고 있다.

“듀얼 액션”으로는 카리브해 주변에서 재배되는 초장면인 “캐리비안 코튼”을 사용하는 등 상품 배리에이션을 넓혀 쿨 비즈 소재 등으로 상품화하려하고 있다. 또한 “피스코”로는 폴리에스터 장섬유와의 교편과 흡한 속건의 기능으로 구매자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소재를 소비자에게 제시할 것이다.♣